

# 부실급식 논란... 고개숙인 어린이집연합회

도내 어린이집 원장들 24일 기자회견 통해 공식사과  
“재발방지 위해 노력”... 주방 CCTV 설치에는 부정적  
도 “조리 모습 찍는것 아니고 배급식단 확인 차원 뿐”

일부 어린이집이 부실 급식을 제공해 논란이 된 것에 대해 도내 어린이집 원장들이 공식 사과했다.

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집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지난 24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내 일부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이번 사태에 대해 도민과 학부모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이번 일로 소중한 원아들과 학부모들이 받았을 충격과 불안감, 불신과 비난의 시선을 생각하면 보육인으로서 가슴이 무너지고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고 고개를 숙였다.

또 연합회는 “보육 현장에서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뼈를 깎는

자정 노력과 지속적인 교육·관리를 하겠다”면서 보육당국이 실시하는 급식 전수조사에 대해서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전날 제주도가 어린이집 주방에 CC(폐쇄회로)TV를 설치해 식단표와 실질 배급식단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방안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강은숙 연합회장은 “주방 내 CCTV 설치가 음식 조리 모습을 찍기 위한 목적이라면 조리사의 인권 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어린이집 급식확인용 CCTV 설치하는 자라나는 아이들이 먹는 급식임을 고려해 식



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집연합회가 지난 24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내 일부 어린이집의 부실 급식 논란과 관련해 사과하고 있다. 이상민기자

단표와 실제 배급식단 및 배식과정 등을 확인함으로써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급식을 시행하기 위한 수단을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대책으로 언급된 주방이라는 곳은 조리실이 아니라 아이들이 급식과 간식을 먹는 곳을 의미한다”며 “조리 모습을 찍겠다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제주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구성된 제주평등보육노동조합은 일부 어린이집이 국이나 물에 밥만 말아 아이들에게 점심을 먹이는 등 부실한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며 관련 급식 사진을 공개해 전국적으로 논란이 일었다. 이상민기자

## “어린이집 주방 CCTV 설치 노동자 감시 반인권적 대책”

‘사단법인 제주평화인권연구소’는 어린이집 주방에 CC(폐쇄회로)TV를 설치해 부실 급식을 막겠다는 제주도의 대책에 대해 “반인권적인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24일 발표한 성명에서 “어린이집 주방 노동자들을 감시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며 “조리 방식과 식재료에 대해 결정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이 주방 노동자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도는 CCTV 설치 대책을 즉각 취소하고, 주방 노동자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상민기자



시선 사로잡는 나무수국 25일 서귀포시 남원읍 휴애리자연생태공원의 나무수국이 입장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강희민기자

## “N차 감염 무”... 한림읍 학교 오늘부터 등교

도교육청 대책회의 통해 확정  
PC방·노래연습장 이용은 금지

코로나19 2차 감염 확산으로 중단됐던 한림지역 모든 학교의 등교 수업이 27일부터 재개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23일 이석문 교육감 주재로 대책 회의를 개최, 한림읍 내 모든 학교의 등교 수업을 27일부터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회의에서는 등교 수업 재개 등에 대해 교육부 및 제주도 방역당국과 협의한 결과 등이 공유됐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26번 확진자 발생 후 추가 확진자 발생이 없고, 현재까지 검사 결과를 고려했을 때 일부 어린이집이 국이나 물에 밥만 말아 아이들에게 점심을 먹이는 등 부실한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며 관련 급식 사진을 공개해 전국적으로 논란이 일었다. 이상민기자

의 등교수업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7일부터 ▷등교수업 ▷돌봄교실·방과후 학교 정상 운영 ▷교직원 정상 출근 등이 실시된다.

등교수업은 학생, 교직원 발열체크와 자가진단, 상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일상소독 강화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실시된다.

다만 PC방·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용을 금지시킬 방침이다.

이석문 교육감은 “등교 수업 이후에도 불안 심리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안심을 드릴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소통·포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서울 광진구 코로나19 확진자가 제주시 한림읍에 머물며 접촉했던 도민들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지난 17일부터 한림읍 모든 학교의 수업을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송은범기자 seb119@ihalla.com

## 찬반 논란 ‘우도 해중전망대’ 국민청원 등장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vs “환경파괴 우려”

작년 도경관심의 3차례 보류

‘섬속의 섬’인 우도면 오봉리 전출동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는 해중전망대 조성사업을 둘러싼 찬반 논란 속에 사업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지난 25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국민여러분, 제주도 우도를 지켜주세요, 우도 해중전망사업 반대합니다’라는 글이 올랐다.

청원인은 “바다를 부쉘 그곳에 해중전망대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업자 선정과정도 납득이 어렵고, 우도 주민들도 많은 분들이 사업 자체를 모르거나 반대하고 있다”며 “이 사업은 추후 우도의 관광지가 아니라 흉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항구정비사업과 해중전망대 사업은 별개 사업이다. 항구정비를 하면서 개인사업자에게 30년간 해중전망대 사업권을 주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며 “그저 노을만 바라봐도 좋은 우도에서 굳이 바다를 파서 해중전망대를 만드는 게 납득이 어렵다”고 사업 추진을 반대했다.

우도 해중전망대 조성사업은 2018년 제주시의 우도면 종합발전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사업자는 150억원을 투입해 오봉리 전출동 공유수면 2000㎡에 17m 높이의 해중전망대와 안내센터, 인도교, 수중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해 제주도경관위원회 경관심의에서 3차례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경관위원회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및 도립공원위원회 행정 절차 이행 후에 심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우도 자연환경과 경관을 고려한 입지 재검토와 사업 중단시 시설물 원상복구 등 경관보호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런 가운데 최근 사업자가 제주시로부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으면서 본격적인 사업 추진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해중전망대 조성사업에 대해 우도에선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긍정적으로 보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혼잡한 섬에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난개발이라는 반대 목소리가 잇달고 있다.

특히 사업 대상지역인 오봉리 주민들만이 아닌 우도면 전체 주민들의 의견수렴 등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미숙기자

## 가축분뇨 무단투기업체 정부사업 선정 취소

가축분뇨 무단투기로 논란이 일었던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소재 A업체가 농림축산식품부의 2020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사업 예비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됐다.

제주시는 올 3월 예비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가축분뇨 재활용업체인 A업체에 대해 최근 농식품부가 예비사업대상자 선정 취소와 함께 2년간

지원을 제외하도록 시에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사업은 금악리 일대에 총사업비 121억5000만원을 들여 가축분뇨 자원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에너지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2021년까지 완공해 하루 150t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A업체는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절차 이행중이던 지난 6월 완전히 퇴비화하지 않은 가축분뇨를 무단배출했다가 제주시에 적발됐다.

현재 제주시 관내 191개 양돈농가(40만8000두)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는 하루평균 2083t이다. 이 가운데 1곳의 공공처리시설과 5곳의 공동자원화시설, 1곳의 에너지화시설에서 56%(1160t)를 처리하고, 10개 재활용업체와 자체처리를 통해 29%, 퇴비로 15%를 처리하고 있다. 문미숙기자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사랑으로

**축**  
CONGRATULATIONS

**취 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현길호**

**함덕리장 한명용 외 리민일동**

**축**  
CONGRATULATIONS

**취 임**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제주여중·고등학교총동문회 제21대 회장)  
제주여고 17회

제주의료원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주여중·고등학교 총동문회 장학재단**  
이사장 임강자

**축**  
CONGRATULATIONS

**취 임**

**국제라이온스협회  
354-G(제주)지구 총재**

**김창현**

국제라이온스협회 354-G(제주)지구 총재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오송희**  
김창현 김방홍 강석태 강승협 채승혁  
현인숙 이선화 안영순 김순희 김진희